

자마, 청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GLDI 40일 강훈련으로 성령 충만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

자마는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40일간의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Costa Mesa에 소재한 Vanguar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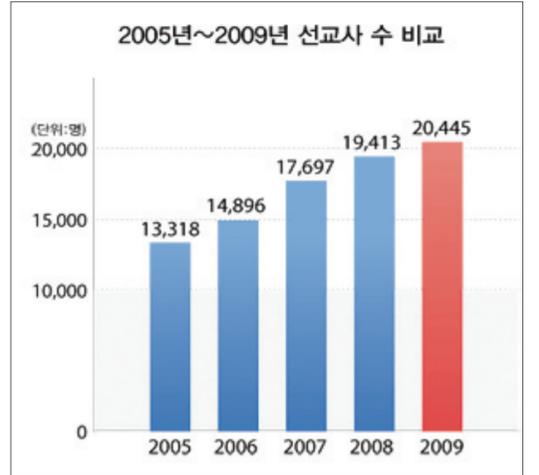
자마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GLDI)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학 2학년부부터 25세까지의 한국계 미국인, 영주권자, 유학생, 국외교포로서 탁월한 성적과 리더 소양을 가진 중생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영어 구사 및 독해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원자는 엄격한 심사

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등록금은 3,700불(40일간의 숙식비 포함)이며 선발 학생 중 신청자에게 2,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GLDI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성령 충만하며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우는 리더십 학교다. 호성기 목사

(필리핀다독교회, PA)는 "큰아들이 1기 GLDI에 참석했고 둘째가 2기에 참석했다. GLDI가 아들들의 인생에 확실한 Turning point가 되었다. GLDI는 하나님께서 우리 2세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축복된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323) 933-4055, www.jamagdi.org (김영민 기자)

한국교회, 해외 파송 선교사 2만명 시대 도래



연도별 선교사 수 증가 추이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마자 2만명을 넘어섰다.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1월(월)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현재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가 169개국에 20,445명(2010년 1월 8일 기준)에 달한다는 통계를 전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에서 한국 선교사 수는 총 13,318명(2005년 12월 말 기준)이다. 이는 지난 2005년 13,318명, 2006년 14,896명, 2007년 17,697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세에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분발이 요청된다. 올해 통계는 2009년 발표 당시보다 5.3%(1032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11.8%(1578명), 2007년 18.8%(2801명), 2008년 9.7%(1716명) 보다 증가율이 낮아졌다. 또 KWMA는 2009년 조상대상 325개 단체 가운데 교단과 선교단체의 선교사 파송비율은 각각 41.7%와 58.3%라고 밝혔으며, 선교사 자녀(MK)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13,8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대 파송교단은 예정합동(파송국가수 : 99, 선교사수 : 2,040), 예정통합(84, 1068), 기간(67, 852), 기하성(71, 834), 기침(53, 635), 예정대신(54, 436), 예정백석(43, 418), 예정합신(42, 335), 기성(50, 318), 예정고신(46, 302) 순이다. 또 10대 파송 선교단체로는 UBF(파송국가 : 82, 선교사 : 1,714), 한국제기아대책기구(70, 823), CMI(68, 630), InterCP(32, 514), 예수전도단(50, 480), WEC국제선교부 한국본부(48, 457), 순복음선교회(65, 338) 등이다.

전년도 대비 1천여명 증가... 파송 1위는 합동·UBF

다음 세대를 주역으로 세우는 '4/14운동' 어떻게 바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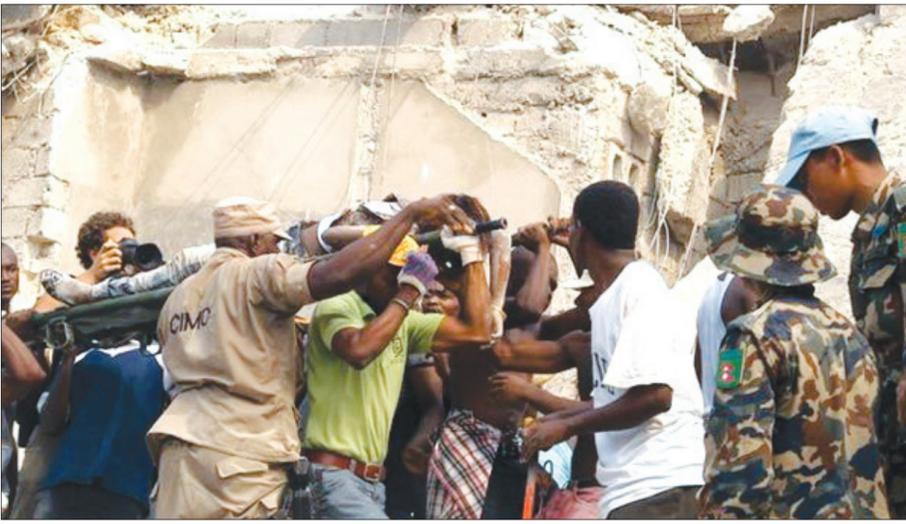
4/14 운동의 산실인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는 교회적으로 4/14 운동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킨 트랜스폼월드(대표 루이스 부쉬 목사)는 새해는 전 세계를 돌며 컨퍼런스를 열어 4/14 운동을 소개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작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된 4/14 글로벌 서밋에는 68개국에서 어린이 선교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감동을 하였어도 현지에 돌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한데, 소명이 없이 풀타임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프라미스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시기를 먼저 간구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일 년 내내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급주 시작된 특새에는 기존 새벽예배 참석수의 배가 참여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1,2월에는 박우신 목사(프라미스교회 부목사), 최완기 목사(하나님의성회 한



플로리다주에서 남동쪽으로 6백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이티공화국을 강도 7.0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티에게 이번 강진 피해를 구호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총회장, 순복음세이트루이스교회 담임), 두영규 목사(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 중부지방회장, 루이빌 임마누엘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에틀란타 안디옥교회), 박윤식 목사(태국 선교사, 전 부산수정동성결교회 담임), 리처드슨 목사, 김명남 목사(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전 총회장, 하성 시카고교회 담임), 김상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또한, 프라미스교회는 작년 12월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파워하우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4세~14세 어린이에게 전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태권도, 미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중·고등학생 및 청·장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으로 전 성도에게 4/14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토요학교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중·고등부 및 청년부가 앞에서 어린이를 이끌고 장년 봉사자는 뒤에서 돕는다.

오는 9일부터 5월 말까지는 봄학기 토요학교가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하고 미술, 음악, 춤 등을 통해 달란트를 계발시킨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에 주안점을 둔다. 어린이라고 교회가 게임이나 율동으로 그들을 붙들고 하면 결국 더 재미있게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 뺏긴다는 것이다. 교회는 어린이도 성인 성도처럼 금식, 성령 체험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에는 성인 성도의 수만큼 어린이 성도를 늘리는 것이 프라미스교회의 비전이다. (2면에 계속)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자동차를 운반해야 하는데... 이사고인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Tel : 310-808-9350 / Fax : 310-808-9353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운자) 운자조정, 운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대표전화 **213.380.2828**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이슬람의 기독교 혐오증, 왜 간과되나?

WSJ, 교회 박해에 대한 국제 사회 무관심 지적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세계 곳곳의 기독교 박해 소식에 왜 국제 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슬람의 기독교 탄압은 폴레랑스라는 미명하에 용인되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판은 이슬람 혐오자들의 신경증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판은 최근 사실을 통해 국제 사회가 서구 세계의 이슬람 혐오증을 경계하면서 간과해 버리고 있는 아랍 세계의 기독교 혐오

증을 이같이 지적했다. 사실은 지난 6일 무슬림 괴한의 총기 난사로 이집트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던 교인들 7명이 숨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작년 7월 파키스탄에서 교인들의 집 1백여 채가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같은 달 이라크에서 3일간의 연쇄 폭탄 테러로 교회 7곳이 공격 당한 사례 등을 들며 국제 사회가 이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는 무관심은 비정상적일 정도라고 표현했다.

또 국제 기독교 인권 단체 오픈 도어

<1면에 이어>

또한, 1.5세, 2세 자녀가 두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무 선교사 (트랜스폼월드 내 4/14 운동을 위한 부서 NEW GENERATION 실무 책임자)는 “부모가 미국에 정착하느라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오해하게 된다.”며 “그런 경우 자녀가 한국 문화에도, 미국 문화에도 적응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선교사는 “언어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언어가 아니라도 자녀의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통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기보다 자녀를 위해 영어를 배우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심각한 애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부터 나누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상담도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함께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사라지고 1세의 신앙도 배울 수 있게 된다.

신앙뿐 아니라 그 자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장점을 받아 들여 언어적으로도 현지인과 다름

이 없고 미국인에게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장점까지 겸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선교사는 “4/14 운동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0년 1월에는 카메룬과 미얀마에서 컨퍼런스가, 4월에는 에티오피아에서 4/14 위원회 수련회와 에티오피아 컨퍼런스가, 5월에는 싱가포르,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5월 한국 집회는 변혁한국과 KWMA 주관으로 할렐루야교회(담양 김상복 목사)에서 4/14 원도우 변혁컨퍼런스라는 주제로 6일, 7일 한국인 1000명, 외국인 100명 참가를 목표로 개최된다.

또한 5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션 컨설레이션’에서 4/14 운동이 소개된다. 이 대회는 1910년 에든버러세계선교대회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선교 전문가들이 모이는 전람회이다.

7월에는 스리랑카, 하이티, 브라질에서 컨퍼런스가, 8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MA(Asian Mission Association) 주최 컨퍼런스에서 이 운동이 소개된다.

한편, 2011년에는 한국, 호주,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남부 인도 등지에서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다.

(오성아 기자)

뉴저지도 뉴욕 이어 ‘동성결혼 NO!’

7일 상원 투표결과 찬성 20·반대 14표로 부결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불허했다. 뉴저지주 상원은 7일 동성결혼 허용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찬성 14표, 반대 20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는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실시된 것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의사당 앞에서 법인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결과에 대해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NOM,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은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다시 한 번 투표를 종용했으나, 다시금 진리를 깨닫게 됐다.”며 “미국인은 정치인이 동성 결혼에 관한 북한 전문가를 밝혔. 보안상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는 “지난해 기독교인이 생물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칼 모렐러 대표는 북한이 또다시 기독교 탄압국 1위에 선정된 것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처럼 체계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

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는 보고된 것만 85명에 이른다. 오픈도어즈는 밝혔다. 두 달 전 체포되었다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풀려난 두 여성 기독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감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이에 굴복하지 않을시 갖가지 신체적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즈는 이란 정부가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이나 높은 실업률과 같은 사회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독교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8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

북한이 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됐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해 온 기독교 박해국 리스트에서 북한은 올해도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를 지켰다.

오픈도어즈는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격한 종교 제한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컬트가 강요되는 체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픈도어즈는 현재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의

오픈도어즈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탄압”

수가 4만여명에서 6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으며 신앙이 박탈됨과 동시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한 북한 전문가를 밝혔다. 보안상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는 “지난해 기독교인이 생물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칼 모렐러 대표는 북한이 또다시 기독교 탄압국 1위에 선정된 것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처럼 체계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

영 교사, 학생에게 기도 권했다는 이유로 해고

“기독교 전통 가진 나라에서 신앙 나누는 것이 죄인가”

영국의 한 교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수업 도중 기도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정 방문 교사 봉사하고 있는 올리브 존스(Olive Johns)는 지난해 11월 백혈병을 앓고 있는 14세 여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학을 가르쳤다. 수업 후 존스는 성경의 기적적인 치료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존스는 수업 후 소속된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당신이 강제 개종을 시도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통지받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존스는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의 모친도 함께 있는 자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부모가 우리 가정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대화를 중단시켰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나왔다. 단지 학생에게 나의 믿음을 나누고 싶었고 그의 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싶었을 뿐

이었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존스의 친구인 페트리(Petri)는 “존스는 언제나 학생들을 돕고 싶어 했다. 나와 통화할 때 가끔은 울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며, 이를 통해 영국은 훌륭한 교사 한 명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존스는 20년이 넘는 교사생활을 해왔으며 문제가 된 이번 학교에서는 5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다. 존스는 “단순히 내가 가진 신앙 간증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며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놀랍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무슬림의 증가와 기독교의 쇠퇴로 인해 기독교에 근간해 만들어진 많은 법들이 새로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들로 말미암아 공공장소, 특히 직장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나 믿음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영 기자)

기독교일보 Christianity Daily

편집인: 박해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지사장: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 Tel: (213) 739-0403, 0404 / FAX: (213) 739-0408
Mail: newspaper@chdaily.com
주소: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NY/P.O.Box 541136 Flushing, NY 11356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심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인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사의 필기교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킴넷, 신년 시무식 감사예배 드려

킴넷(사무총장 최일식 목사)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한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시무식 감사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백운영 선교사, 박희민 목사, 한기홍 목사, 최찬영 목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배는 박희민 목사의 설교, 최일식 목사의 킴넷의 시작과 미래의 창출,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김종필 목사가 나서 이슬람의 실재를 알리고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박희민 목사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 하면 안된다 저저 하면 안된다 등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믿는 이들이 그렇지 못해 때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으며,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2010년 한해 어떻게 사 용하시길 원하는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며 종말론 적으로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일식 목사가 나서 '킴넷 시작과 미래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킴넷의 중요성과 올 한해 킴넷이 해야 할 일들을 참여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예배 후 참여자들은 기도회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 >전 세계 2만 명의 한인 선교사와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은혜한인교회를 위해 >킴넷 사역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태근 기자)



킴넷 시작과 미래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언한 최일식 목사.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협 되길”

남가주교협, 40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0일 오후 LA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민중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설교, 찬양, 이·취임인사, 축사, 기념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은 기갑 미주연회 한기형 감독이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종로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했다.

한 감독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 준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듣는 종도 있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종도 있다"며 "2010년 남가주교협이 일을 열심히 해 하나님께 칭찬 받길 바란다" 전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김재수 총영사

는 "이 시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취임하시는 지용덕 목사님이 섬기는 지도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는 "교계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그 단체가 죽고 사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렸다. 교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적합한 인물이 세워질 때인데 지용덕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전 회장 한중수 목사는 이임사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교협 회장으로서 한해를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교협 회장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



전직 회장 한중수 목사와 신임 회장 지용덕 목사가 교협기를 함께 흔들고 있다.

다"고 전했다.

남가주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는 취임사에서 "신임회장으로서 기록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마

무리로 끝났다. 지용덕 목사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지를 잘 알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마

무리로 끝났다. (이태근 기자)

“교도소도 선교지, 예방에 앞서 유혹 이길 능력 길러줘야”

[이민교회 문답 ⑦] 쌍둥이 빌딩 구치소 이병희 목사

일곱 번째 만남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쌍둥이 빌딩 구치소의 한인 시니어 채플린 이병희 목사다. 이 목사는 한때 유명했던 갠다 '와칭'의 뉴욕 본부 멤버로 활동하던 아들을 교화한 후 교도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 8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 목사는 동부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등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며 사역을 시작했고, 3년 전 LA로 왔다. 이 목사는 웨스터민스터에서 M.Div 학위를 받았고 D.Min 과정을 수료했다. 또 풀러신학대에서 D.Min과정을 수료했으며, 미주총신대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오랜 교도소 사역 경력이 있으신데, 수감자 중 한인의 비율을 얼마나 되나요?

미국에는 카운티별로 Jail과 주별로 prison이 따로 있고 각 주에서 운영하는 prison은 한개씩 있습니다. LA의 경

우 8개의 Jail이 있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인 비율은 1만 명 중 20명 정도입니다.

- 교도소에도 타종교가 많을 것 같습니까?

교도소에는 많은 타종교가 들어와 있고 재소자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세력은 이슬람인데,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구치소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도 없고 통계가 나오지도 않지만, 개신교의 비율은 60% 정도입니다.

- 교도소 사역에 한인교회의 동참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교도소 사역에 한인교회의 참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인교회가 교도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데 교도소도 언어가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이들이 한국

에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인교회가 교도소도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교도소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선교지입니다. 미국교회에선 교도소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 재소자들이 출소 후 교회를 찾나요?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출석할 만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가진 편견 때문인데 재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교인들은 재소자라는 이유로 꺼리고 목회자는 상처가 될까 봐 재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랑



쌍둥이 빌딩 구치소 시니어 채플린 이병희 목사

이 필요합니다. 재소자를 교회에서 품지 못하면 오갈 때 없는 이들 중에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태근 기자)

수준 높은 '화요집회'로 교회 정착 돕는다

엄숙하고 무거운 예배 분위기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중년층 성도들이 선호한다. 반면 청년층은 경쾌한 찬양을 부르며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는 열린 예배를 선호한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나 교회를 처음 찾은 이들은 두 가지의 예배 분위기가 익숙지 않고,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들을 위해 웨퍼드 미니스트리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 아트홀에서 화요 집회를 시작했다.

웨퍼드는 교회 분위기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나 좀 더 다양한 예배 문화를 알고 싶은 이들 그리고 예배 문화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또 웨퍼드는 집회 장소를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교회 아닌 외부 장소, 비전 아트홀을 집회 장소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웨퍼드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장소를 빌려쓰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 나갈 바라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싶은 마음에서다.

웨퍼드 미니스트리 이하영 리더는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한 건 아닌데 개교회에서 예배 문화를 알기 위해 견학 온 적도 있었고, 웨퍼드 집회에 와보고 동역자로 섬겨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웨퍼드 멤버는 현재 25명. 이들 대부분은 전문 음악가로 본국 내 최고의 드러머로 불리는 황정관 씨와 CCM 뮤지션 김승희 씨 등이 멤버로 있다. 이 리더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이나 교회에 처음 가본 이들은 모두 전문화된 세상 음악을 많이 접했다. 자칫 교회의 찬양이 부족하거나 우습게 보일 수 있는데 웨퍼드는 전문화된 음악을 선사해 마음 문을 열기 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리더는 "찬양 가사 하나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웨퍼드를 통해 예배 문화가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앨범이 나오면 투어도 할 계획인데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213-249-4855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2010학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학제>

- 학사(B.A.): 128학점
- 교역학석사(M.Div.): 98학점
-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98학점 = 30학점(교회음악) + 68학점(신학과목)
- 신학석사(Th.M.): 30학점 = 24학점(Course Work) + 6학점(Thesis)
- E.S.L.(Level test: 2010. 1. 11, 오후 7:30, 22 오후 4:30) / 전형료 \$25

<접수 및 개강일>

1. 접수마감일 : 2010. 1. 15 (금)
2. 개강일 : 2010. 1. 25 (월)

<구비서류>

입학원서(1통), 담임목사 추천서(1통), 재정보증서(1통), 최근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통), F-1 학생일 경우 I-20 Fee \$100, 전형료 \$100

* 위 서류는 본교 소정양식으로 제출(본교 웹에서 다운로드)

<특전 및 장학금>

1. 본교 졸업생은 해외한민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 통합 목사로 이명 가능
3. 각종 장학금 혜택 (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학생, 근로, 동문회, 산동회, 여선교회, 지교회, 지정장학금 등)
4.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5. 1.5세와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개설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앨범을 들고 집회를 한다는 게 고달팠지만...”

세계성경교회 김행용 장로는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실신한 주의 일꾼 중 한 사람이다. 김 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비전과 집회를 통한 치유의 역사를 위해 찬양집회를 해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김 장로는 전세계에 153개의 신학교를 세워 사람을 얻고 길러 남기는 사역인 '세계비전 153' 프로젝트를 위해 집회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무거운 앨범을 들고 집회를 다니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찬양까지 하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15번째 집회에서는 힘이 너무 빠져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고 귀국해서는 누워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깨닫게 된 것은 더 기도 해야한다는 것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도 하지 못



평신도 찬양 사역자 김행용 장로

남 등에서도 집회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집회는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평신도 찬양사역자 김행용 장로의 한국 집회 후기

를 시작했으며, 수익금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한다. 김 장로가 집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횟수는 한해 2-3차례. 최근 김 장로는 집회를 위해 또 한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방문기간 15개의 교회와 7개의 소그룹에서 집회를 가졌다. 김 장로가 집회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2년 6개월 전이며, 지금까지 모두 71개의 교회를 방문했다.

김 장로는 집회를 위해 자주 교회를 비울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빈 자리 때문에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김 장로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라며 위로했다.

김 장로는 “앨범을 들고 집회를 한다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주님이 알아주십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최근 한국교회 집회를 통해 한가지 도전 받았다고 한다. 김 장로는 “한국 시골 교회 집회를 통해 아직 시골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고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주에도 그런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불을 붙여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라며 사역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김 장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주 서부에서도 활동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동부의 교회를 순회할 계획이다. 김 장로는 “앞으로 북한과 중국에서도 집회를 갖고 싶고 나아가 남미,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에서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 장로는 “더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2집 앨범이 나오는데 그때 앨범을 들고 또 한차례 한국을 방문합니다. 집회의 주제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고 말했다.

김행용 장로는 코헨신학교 D.Min 2년 과정을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음악 치료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태근 기자)

한인UMC, ‘일천교회 십만제자’ 주제로 총회

여성 목사안수 25주년과 타인종 목회매뉴얼 출간 기념식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뉴저지연합교회(나구용 목사)에서 '2010 New Jersey' 한인총회를 개최한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작년 LA 연차 총회에서 교단이 추구하는 제자화의

목표를 위한 역량 모으기와 교세 감소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일천 교회, 십만 제자' 운동의 태동을 알렸다. 이번 총회에는 이성현 목사, 신경림 목사, 정희수 감독 등이 설교자로 나서 말씀을 전하며 '일천 교회 십만 제자'라는

주제로 열린다. 총회기간 여성 목사안수 25주년과 타인종 목회매뉴얼 출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의 소그룹 세우기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사랑의쌀, 체험학교부터 여성·청소년 본부 설립까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이성우 목사)가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시무예배를 드리고 한 해 계획을 밝혔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올해 미국 체험

으로 시행된다. 미국 체험학교에는 인천, 광주, 안산, 충주 등 20여 개의 도시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오는 22일

하게 된다. 사랑의 쌀은 타민족에게 배분되는 만큼 쌀이 아닌 배분되는 민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용한다. 이성우 목사는 “새해엔 성시화 운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010년 새해 계획 밝혀

학교와 고국 체험학교를 실시하며, 과테말라 국제성시화에 참여하고 사랑의 쌀을 다민족에게 추가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체험학교는 2월 5일, 고국 체험학교는 8월 중

과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열에이에 발을 디디며 라스베이거스와 산호세 성시화운동의 초청으로 각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며 그랜드 캐년도 관광

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과 청소년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며, 매주 갖는 모인도 지역별로 확대할 것”이라 전했다.

(이태근 기자)

<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거리에서 >



돌로스선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홈리스 지역 현장을 찾았다.

“수고와 봉사가 너무 작은 것인데도 고마워하는 홈리스들의 반응에 놀랐고 짧은 기간에 많은 고달팠어도 이제껏 어떤 수련회보다 인상적이고 보람 있었어요”

공황사역 현장을 체험하면서 커뮤니티 봉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돌로스선교회(담임 황의정 목사) 중고등부 30여 명이 소중한사람들(김수철 목사)을 찾았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1박 2일간의 일정

중 소중한사람들 시무예배에 참여했으며, 나눔선교회를 방문해 한영호 목사로부터 마약 중독의 실상과 갱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들은 소중한사람들 사역 현장인 다운타운 스킵드로우 거리를 찾아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등 공황 사역에 동참했으며, 소중한사람들 박영민 목사로부터 노숙자들의 실상과 대안 등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했

다. 또 나성양로보건센터를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문했다.

소중한사람들 측은 “학생들은 짧은 여정 속에서 다양한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공황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 음식을 통해 배고픔의 현형을 이해했고 앞으로 무슨 사역을 통해 삼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돌로스선교교회, 6주년 예배는 선교사 파송식으로

돌로스선교교회(황의정 목사)가 2월 7일 창립 6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다.

돌로스선교교회는 2003년 10월 13명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11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 교회는 6년이 지난 현재 19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선교 실천을 위해 헌금의 10%를 선교비로 보내고 있다.

교회 측은 “선교사 파송 예배의 모든 준비와 절차 그리고 당일의 행사가 축전이 되도록 그리고 돌로스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자세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바란다”고 전했다.



돌로스선교교회 황의정 목사.

KPCA, 서부 4개 노회 연합신년하례

해외한인장로회(총회장 서욱수 목사) 소속 서부 4개 노회가 11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연합 신년 하례식을 했다. 이날 서노회, 서남노회, 서중노회, 로스앤젤레스 노회 등이 참여한 신년 하례식은 서노회 부

노회장 박성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말씀은 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 정해진 목사가 ‘새해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전했다. 서노회 증경 노회장 강신권 목사의 축도 후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눴다.



신년 인사를 나누는 KPCA 4개 노회 소속 목회자들.

어려운 이웃 위해 무료 의료 봉사

LA 동국대학교(총장 김인식) 한방 병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이후 신경장애, 중풍병자 등 수많은 환자가 치료

를 받고 있다. 무료 의료 봉사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213) 487-0150



기독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성열린문교회 LA Open Door Church 담임목사 :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413-1600, 1610, 1900 | Fax. (213) 413-1911



소중한사람들 목사 : 김수철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el. 213-385-4515 | Fax.213-385-5474 www.ppeople.org



호산나 서점 장로 : 김경생

18777 E. Colima Rd ROWLAND HTS CA 91748
Tel. 626-810-0014

기독일보
www.chodaily.com

복음주의 지도자들, 각국에 온난화 대처 협력 촉구

유엔 코펜하겐 정상회의 · 세계종교의외서 기후 변화 논의

해외한인장로회-미국장로교, 교류 본격화

나성영락교회 66개 단체에 26만불 전달

“이스라엘 기독교 실상 다룬 ‘영적(靈的) 블록버스터’

다큐멘터리 <회복>, 첫 공개시사회 성황



다큐멘터리 <회복>의 한 장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 11일 오후 삼성동 메가박스서 첫 시사회를 통해 드디어 공개됐다.

한국인 최초로 이스라엘 기독교 실상을 다룬 다큐영화 <회복> 시사회는 메가박스의 M관, 5관, 7관 등 3개관에서 기독교인, 언론사, 문화연예관계자 등 1200명이 넘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열려 성황을 이뤘다. 기독교영화가 멀티플렉스에서 3개관을 대관한 일은 그간 유례가 없다.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회복>은 이스라엘 메시아니즘(messianic jew: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처절한 현실을 비롯, 그들의 비밀 예배장소와 유대교 회당 첫 공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직접 인터뷰 등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국내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 김중철 감독이 연출한 <회복>은 총무로의 특급 촬영 스태프들이 참여해 두달간 2만Km의 대장정을 거쳐 만들어진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이 풀HD 고화질 화면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며 블록버스터급 영상을 연출했다. 영화는 메시아니즘 청년 아미오르티즈가 고향에게 폭탄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 막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2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원망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절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 정도)들은 예수를 거부하며 증오하고 있고, 자신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돌팔매, 방화, 폭행, 이자매, 가택연금은 물론, 폭탄테러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된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하급수적(2010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 600만명중 1만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메시아니즘의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모습에 전달된다. 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매진해야하는 당위성들이 메시아니즘 목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증거된다. 현재 이 영화속에 등장하는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 야콥 담카니 목사, 매노 칼리셔 목사 등은 <회복>의 시사회와 개봉을 전후해 내한, 국내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경 기자>

‘세계 선교 위해 헌신합시다’



그동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강상삼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제21차 정기총회 및 선교지도자 신년하례회가 11일 오전 10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

기총회에서는 한성교 총무가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며 강상삼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송경호 기자>

하용조 목사, 새해 맞아 온누리신문과 특별 인터뷰

“교회 창립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온누리신문과 2010년 새해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건강과 새해 목표계획을 밝혔다.

먼저 하 목사는 지난해 받았던 간암수술에 대한 경과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수술이 잘 됐다”며 “정차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하고 있는 투석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분간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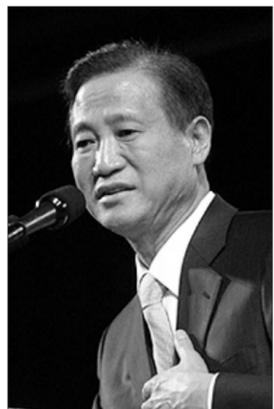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올 한해 교회 표어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하고 지난 2일부터 40일 특별 새벽부흥집회를 시작했다. 하 목사는 “금년에는 온누리교회가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말해 ‘본질로 돌아가자’를 목표로 나아간다. 그 동안 외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많이 맺었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 교회를 창립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

다”고 올해 표어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태어나길 당부했다.

하 목사는 온누리교회 선교방송인 CGN TV를 통해 다문화 선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12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CGN TV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CGN TV는 현재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국어 방송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선교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대구모전도집회인 ‘러브소나타’를 일본의 나고야와 오베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하 목사는 “지난 150년 간 외국인들이 일본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

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었다”는 말로 러브소나타의 성공적 개최를 언급한 뒤 “올해는 일본 차세대 전도에 집중하려 한다. 일본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처

럼 일본 교계 지도자들도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교계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무교회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차세대를 위한 전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러브소나타를 진행해보겠다고 하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며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고 일본 교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목사는 “건강이 허락해 해외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뵙길 소망한다. 해외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해, 은총의 새해,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길 축원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뇌졸중 이긴 박종호 “나로 인해 사람들 행복하다면”

서울대 음대가 낳은 최고의 테너, 천상의 목소리, 한국의 파바로티, 노래하는 거인, 춤추는 테너, 조수미의 라이벌... 한국 기독교음악(CCM)을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이끈 개척자이기도 했던 테너 박종호가 돌아왔다.

가스펠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의전당, 올림픽 체조 경기장과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전회매진 대기록, 앨범 판매 200만장, 정규앨범 11장, 라이브 앨범, 크로스오버 앨범 등 가스펠계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한 그는 길고도 뚜렷한 행보를 보여왔다. 잠시 미국 유학과 뇌졸중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우리 곁을 떠나 침묵했지만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요즘에는 전국 곳곳의 교회를 누비고 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박종호는 달라졌다. 10년 전 그는 신승훈, 인순이, 박마마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대형 공연장 위주로 활동하던 가수였지만, 이제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유학 생활 10년이 가져다 준 깨달음 때문이다. 지휘자 정명훈의 모교로 널리 알려진 미국 매네스 음대 대학원 프로페서넬과정을 마치기 위해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박종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어느 작은 마을 교회를 찾게 됐다.

“삶의 고통과 외로움에 지친 이민자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겸허해져야 한다. 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찾아가야 한다’고요.”

이후로 그는 한 달에 15,000Km가 넘는 거리를 순수 운전하며 미 전역 방방곡곡 구석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니,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를 결심을 하게 됐고, 문화적 해택과는 동떨어진 그곳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종호의 가스펠 아워’ 진행을 맡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박종호는 목소리만으로 전국을 찾는 데 만족하지 않았

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여수, 부산, 대전 등 전국 구석구석까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특히,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에선 가족의 해체가 급속화하고 있었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교회 성도들도 ‘파괴의 물결’에서 자유롭진 못했다. 세상을 감싸고 위로하는 음악에 대해 고민하던 박종호는 후배 가수 김중환을 만나게 되고 하나의 곡이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 그 노래는 바로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곡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박종호 음악의 첫걸음이었다.

“이혼하려던 부부가 4주간의 조정 기간에 ‘당신만은 못해요’ 노래를 듣

을 설립하고 인도에서는 에이즈 병원도 세워졌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수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체험 때문. 전도여행에서 그는 본국에서 지원이 끊겨 아이들 학교조차 보내지 못하는 뉴욕 버팔로 출신 선교사를 만나기도 했고, 영국 이슬람 지역에서는 한 선교사가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돈이 없어 스프레이통을 뒤져 생활하며 선교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참담했다.

사실 그 역시 뇌졸중이라는 병을 겪으며 처음으로 낙담이란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선 그의 수술을 앞두고 수천, 수만 통의 기도편지가 하늘로

전국 곳곳서 공연 등 본격 활동... 라디오 DJ, 선교도



“회복과 처유의 전도사가 되길 원한다”고 밝힌 테너 박종호.

고 마음을 바꾼 사례도 있었어요. 이 만남의 폭이 확대되고, 저의 음악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해요. 특히 교회와 대중의 가교적 위치에 서서 가정과 사회의 관계회복, 그리고 행복을 노래하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전체 사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박종호는 앨범 판매 수익금은 현재 대부분 YWAM 예수전도단을 통해 해외 선교사 건강검진 및 수술비를 위해 내놓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고아원 시설

을 설립하고 인도에서는 에이즈 병원도 세워졌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수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체험 때문. 전도여행에서 그는 본국에서 지원이 끊겨 아이들 학교조차 보내지 못하는 뉴욕 버팔로 출신 선교사를 만나기도 했고, 영국 이슬람 지역에서는 한 선교사가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돈이 없어 스프레이통을 뒤져 생활하며 선교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참담했다.

사실 그 역시 뇌졸중이라는 병을 겪으며 처음으로 낙담이란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선 그의 수술을 앞두고 수천, 수만 통의 기도편지가 하늘로

기독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독일보
www.chdaily.com

복음주의 지도자들, 각국에 온난화 대처 협력 촉구

유엔 코펜하겐 정상회의, 세계종교의회서 기후 변화 논의

해이원인장로회-미국장로교, 교류 본격화

나성영학교회 66개 단체에 26만부 전달

샘물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민지
9355 St., Charles Rock Rd. St. Louis, MO 63114
Tel. (314) 426-5683 | Minjstark@yahoo.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 강일용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el. (626) 912-6600 | Fax. (626) 912-0303

브레아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찬희
590 W. Central Ave. Ste. A Brea, CA 92821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요일-금요일) (새벽 5: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뉴저지초대, 젊은이 · 일본어 공동체 '독립선언'

지역 · 세대 · 소수민족선교까지... 새해엔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산하 맨하탄 젊은이공동체와 일본어 미니스트리가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해 운영된다. 독립 결정이 난 것은 작년 12월이지만 공식적인 독립 체제로 운영된 것은 새해부터다.



작년 7월 새로 부임한 한규삼 목사

두 교회는 '뉴프런티어초대교회'(담임 류인현 목사), '초대(소다이)일본어교회'(담임 조기철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4년 전 뉴욕과 맨하탄 젊은이들을 위해 50명으로 시작된 뉴저지초대교회 젊은이 공동체는 현재 500여명의 장년, 청년, 어린이 성도를 가진 독립 교회로 성장했다.

뉴프런티어초대교회 류인현 목사는 "맨하탄 젊은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 이제는 맨하탄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독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류 목사는 "독립했지만 전략적인 파트너 교회로 나갈 것"이라며 "뉴저지초대교회와 선교도 같이 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가지며 간다"고 말했다.

당회의 역할은 신설된 이사회가 대체하며, 이사회는 뉴저지초대교회의 한규삼 목사의 사무장으로 4인과 뉴프런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의 운영위원회 위원 4인 집사로 구성된다.

한규삼 목사는 오는 17일 뉴프런티어교회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통해 뉴프런티어초대교회 설립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뉴프런티어교회는 맨하탄 첼시 지역에 있는 PS 11(The William T. Harris School, 주소 320 West 21st Street, NYC 10011)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주중에는 맨하탄 32가 선교관(29 W 30 St, #202, NY)에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드린다. 한편, 맨하탄 젊은이공동체와 마찬가지로 4년 전 신설된 일본어 미니스트리 또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독립했다. 뉴저지초대교회는 현재 펠리세이즈파크 브로드 에비뉴에 있는 선교관을 2월 1일부터 4000sq 규모의 건물(784 Grand ave, Ridgefield)로 확장 이전한다. 초대일본어교회는 2월부터 새로운 선교관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한다.

초대일본어교회 조기철 목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을 섬기고 소수 민족 커뮤니티를 섬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초대일본어교회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본인을 찾아 세우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목사는 "뉴저지초대교회는 모교회, 초대일본어교회는 지교회로 전략적으로 개척된 것"이라며 "앞으로 두 교회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일본어교회 이사회는 뉴저지초대교회 장로 중 선임자와 일본어교회 일본인 중 일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초대교회는 2010년 신년 특별 헌금 전액을 초대일본어교회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상아 기자)

한인정치신장 열쇠는 "희생정신"에 있다

해롤드 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미주 한인인날 기념행사 참석차 애틀랜타를 방문해, 지난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주 주류정치'의 숨은 일꾼'으로 불리는 해롤드 변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기자들에게 미주한인의 날 제정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주류사

서서 제실직업을 해주는 식의 방법으로 주류사회를 섬길 것을 강조한 변 부위원장은 "누구나 보증을 든다. 아직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을 대비해 돈을 갖다가 놓는다. 보증을 드는 것과 똑같이 1세대들이 주류사회 섬기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2세들의 역량

커뮤니티는 카운터 마다 말단 직원들로 많이 가있다. 미국의 주류로 낮은 위치라도 들어가 있어야 힘이 생긴다. 말단부터 들어가 인정받으면 거기에서 쌓인 인맥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한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한인사회가 자녀들의 진로에 있어 시야를 넓혀야 한

해롤드 변 부위원장 미주한인의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회에서 한인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는 데 1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변 부위원장은 "미주 이민 100주년이 지났고 소수 민족으로 유일하게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은 놀랄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00년이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미주한인의 날이 한민족의 것이지만 앞으로는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다민족, 주류사회로 넓혀 가야 한다"고 말해 미주한인들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애틀랜타 한인이 10만 명이라고 들었다. 10만 명이 있으면 국회의원, 시의원이 나올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있다. 보증을 든다는 생각으로 먼저 주류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한인이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말하며 주류사회에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뻗길 것을 권했다. 지난주처럼 눈이 왔을 때에 나

이 커지고 한인사회가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부위원장은 "1세대들은 자녀가 피리가 아닌 우두머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직업만을 고수한다. 그러나 머리가 되려면 말단부터 경험해 봐야 한다. 월남



해롤드 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독교적 희생정신이 없이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자기자신을 아무도 모르게 2세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1세대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10년 안에는 애틀랜타 시장이 한국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목표가 2세가 주류 정치에 진출하는 다리역할이 되는 것이라는 변 부위원장은 "2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돈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경험이 쌓이고 네트워킹 생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데 아직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2세 주류정치에 돕는 것이지만 1-2년 후에 수퍼마이저가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참가한 목회자들의 단체사진.

"이웃과 함께" 손잡고 새해 새출발하는 뉴욕교협

대뉴욕주기후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11일 플라시 대동연회장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신년하례회로 신년을 열었다. 한인 사회와 교계에 5백여 명이 초청된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한인 교회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뉴욕말장예인선교단, 코코장예아동센터 장애인 30명을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 5명, 무의탁노인 5명, 조선포 등이 초청됐다.

또한, 한인회장, 총영사, NYTS 총장 등 한인사회의 지도층과 미 주류사회의 인사도 초청됐다. 한편, 이날 하례회 설

교는 장영춘 목사가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1-3)는 제목으로 전했다. 장 목사는 "믿음은 제1의 자본"이라며 "우리의 소망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자.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길을 책임져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하례 순서 축사는 하용화 회장(뉴욕한인회 회장), 김경근 총영사(주 뉴욕총영사), 양춘길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김종덕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그레이스 맹 의원(뉴욕주 하원의원), 데

일 열빈 목사(NYTS 총장)가 전했다.

김경근 총영사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0년은 글로벌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데 동포 사회도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며 "동포사회"와 "뉴욕교협"의 도약도 빌었다. 또한, 뉴욕목사회 회장 김종덕 목사는 "2010년 뉴욕교회협의회와 모든 교회에 아무도 단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오상아 기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글로벌 리더십 서밋

월로우크리교회에서 후원으로 진행되는 Global Leadership Summit이 1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Lead Where You Are"(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미국 월로우크리교회에서 시작한 리더십 서밋은 교회 사역에 초점을 맞춘 최고의 리더십 개발훈련 프로그램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북미지역에만도 워싱턴을 소로 연결된 140개 이상의 장소에서 6만5천명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2009년, 57개국 157개 도시에서 30가지의 언어로 6만명의 리더들을 DVD에 기초한 비디오 강의를 통해 섬겼다.

서밋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계가 내놓는 새로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개인이나 교회는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변화의 중심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약하고 있는 리더들의 경험을 이 서밋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위기들을 동력으로 삼아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리더십 행사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서밋은 DVD(한글자막)로 진행되며 간단한 간식과 티타임 그리고 점심도 제공된다.

총 4번의 강의를 있으며 빌 하이벨

1월 23일 "Lead Where You Are"라는 주제로 진행

스(월로우크리교회 담임) 목사가 '거룩한 불만족(1강)'과 '세상의 소망(4강)'에 대해서 강의하고, 존 오트버그(멘토파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지도자의 가장 큰 두려움(2강)'에 대해서, 웨인 코데이로(뉴호프교회 담임) 목사가 '죽은 지도자의 달음질(3강)'에 대해서 강의한다.

워싱턴 지역의 삶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이 대상이며 특별히 목회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 교사, 소그룹 리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등록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웹사이트(www.kcpc.org)의 The Leadership Summit 섹션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1월 17일까지 조기 등록시는 개인은 30불, 부부는 50불의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당일 등록은 오전8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고 개인은 40불, 부부는 70불이다. 등록은 선착순 500명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GLS@kcpc.org 또는 703-343-1746으로 할 수 있다.

(조요한 기자)



Cal Green SOLUTIONS

물 남가주 교회전역.

가볍게 리베이트 받으세요.

물값은 향후 수년간 계속 올라갑니다.

최신형 HET 변기와 전혀 물을 쓰지 않는 소변기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LADWP 지역 교회특별상담

Toilet - \$300

Urinal - \$500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T.877-393-8881

15370 Fairfield Ranch Rd Suite B2, Chino Hills, CA 91709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월 19일(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1명에서 시작돼 1342명으로 나누어진 사랑

지난 10월부터 3개월동안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의 뜨거운 동참 가운데 진행된 사랑나눔기공수등록캠페인이 1342명의 골수 등록을 받으며 1차적으로 종료됐다. 주최측은 2009년 12월까지 캠페인의 종료 시점으로 잡았으나 2010년 1월, 2월에도 캠페인을 연장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 캠페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백영민 목사는 "목표인 3천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인교회들의 참여와 나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교회의 지력을 보여준 계기"라고 자평했다.

지난 12월 13일 LA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아시아골수기증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미전역을 다니며 골수 등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난 3개월동안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시카고지역을 중심으로 2년간 진행된 골수 캠페인에서 5백명이 등록

한 것에 비교할 때 3개월동안 1342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번 캠페인에는 체육회도 그동안의 노후를 살려 협력했으며 총집계상 시카고 지역에서 골수 등록을 한 사람은 2천여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니뭐니 해도 '희망'이다. 2천명의 사

골수등록캠페인 1월, 2월까지 캠페인 확대

랑은 미중서부 지역의 7-8명 환우들은 물론 미 전역의 환우들에게 작지만 큰 희망이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증 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또 2만분의 1이라는 골수 일치 확률상 2천명의 골수가 과연 몇명을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랑의 운동은 앞으로 미전역 한인사회에 골수 운동의 시작을 알릴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여개에 가까운 한인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연합과 나눔의 문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이 캠페인은 글렌브룩교회에 출석하는 한 백혈병 환우에게서 시

작했으나 글렌브룩교회를 거쳐 전 교계로 확대됐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주일예배 때 시간을 내어 광고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주었으며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되어 캠페인 자원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다.

갈릴리안교회, 구세군메이페어커뮤니티교회, 콘뉴스교회, 그레이스교회,

글렌브룩교회, 나사렛성결교회,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노스필드장로교회, 뉴라이프교회, 두란노침례교회, 레이뷰교회, 물렌동산교회, 미드웨스트교회, 배링턴양문교회, 베델교회, 빌립보교회,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샘물교회, 순복음사랑교회, 순생명교회, 시카고한인교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아가페장로교회, 열방교회, 올랜도파라다이스교회, 에버그린장로교회, 중앙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주빌리교회, 참길장로교회, 하이드파크교회, 호변성결교회 등이 현재까지 참여한 교회이며 오는 1월, 2월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교회들이 다수 있다. 교회 외에도 시카고교협, 교역자회, KUMC교역자 모임, 목사부부합창단 등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골수 등록을 유치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성들”



시카고 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들 헌신예배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 1백 20여명이 헌신예배를 드리며 선교와 봉사를 다짐했다. 여성교회연합회는 10일 오후 5시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성찬을 함께 했다.

올해 여성교회연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헌신을 다짐했다. 북일리노이연회 정희수 감독

이 말씀을 전했으며 연합회의 임문순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예배 중에는 김옥연 락포드 지역 감리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으며 예배는 이종민 북일리노이연회 선교감리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에는 김광태 목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효삼 목사(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시카고지역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 회장, 김태준 목사(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등 목회자들도 참석해 여성교회회를 응원했다.

(김준형 기자)

워싱턴지역 청년연합회 결성 움직임 가시화

9일 교협 주최 청년 연합찬양집회도 성황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도 목사)가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싱턴팀을 초청해 열린 워싱턴지역 청년 연합찬양집회가 1월 9일(금)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은혜속에 마쳐졌다. 이날 워싱턴한인장로교회를 가득 채운 청년들은 첫날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청년들의 열기에 더욱 힘을 받은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싱턴팀은 “멈출 수 없는 찬양” “예수 이름 높히세” 등을 찬양하며 워싱턴 지역에서 사단이 떠나가고, 절망과 두려움, 상처가 떠나가

고,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 또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찬양했다.

김성도 목사는 에스겔서 37장 9-10절을 인용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

실 것”이라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니 뼈들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아무리 불가능해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살 것”을 강조했다.

예배 후 김성도 목사는 “이들동안 집회에 참석해보니 이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마음껏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본 청년들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이런 열기가 식기 전에 워싱턴청년연합회가 잘 구성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교협은 1월 17일(주일) 오후 5시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에서 각 교회 청년대표 및 지도자 모임을 갖고 워싱턴청년연합회 구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요한 기자)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싱턴팀과 함께

마틴루터킹 데이 기념 행사 풍성

흑인해방운동의 선구자인 마틴루터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의 탄생을 기리는 마틴루터킹 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 목사가 자라고 활동한 애틀랜타에서 그를 기념하는 콘서트부터 촛불집회, 포럼, 어린이를 위한 행사 등 풍성하게 준비된다.

〈킹 목사 기념콘서트〉 애틀랜타시포니오케스트라 18주년 “A King Celebration” 콘서트가 1월 14일 오후 8시 애틀랜타 모어하우스칼리지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애틀랜타시포니오케스트라와 모어하우스 그리고 스펠맨 글리 클럽이 함께한다. 티켓은 25불(단 학생은 7불) 티켓구매는 ASO Box Office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404 733-5000 혹은 이메일 (boxoffice@woodruffcenter.org)로 하면된다.

〈에베네저침례교회 기념 행사〉 마틴루터킹 목사 기념행사가 16일(토) 오후 2시 킹 목사가 담임했던 에베네저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조카인 A.D. 킹 목사가 초청돼 메시지를 전한다.(에베네저침례교회: 407 Auburn Ave. NE, Atlanta, GA, 30312) 〈18일 킹 목사 생가 개방〉 마틴루터킹 목사 생가를 시민들을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개방한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여는 오픈하우스

에서는 마틴루터킹 목사가 12살부터 살았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생가 주소: 501 Auburn Ave. NE, Atlanta, GA, 30312) 마틴루터킹 데이 기념 환경미화 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JCI 애틀랜타 주회로 환경미화행사가 마틴루터킹 중학교에서 열린다.(장소: 545 Hill Street., Atlanta, GA, 30312) 〈어린이를 위한 행사〉 18일 애틀랜타어린이박물관에서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을



임현석 목사, 김효선 교수

오는 1월 31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시카고 밀알선교단 자원봉사자 교육이 김효선 교수의 강의 아래 이뤄진다. 자원봉사자가 단순히 장애우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우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양성되며 자원봉사자들 역시 장애우들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 강사 김효선 교수는 캘리

포니아주립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다. 김 교수 역시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우이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30여년간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와 활동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녀는 단국대에서 특수교육으로 BA와 MA 학위를 취득한 후 도미해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Ph.D. 학위를 받았고 풀러신학교에서 M.Div.를 마치고 신학적 소양까지 쌓았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언어치료, 장애부모교육, 중증장애교육, 특수체육 등 다양하며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정교수가 된 후, 대학 부설 전환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3백여만불에 달하는 기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의 강의에 앞서서는 뉴라이프교회 임현석 부목사가 부흥회 형식의 예배를 인도한다. 임 목사는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해 M.Div.를 마쳤다.

(권나라 기자)



마틴루터킹 목사 생전 모습

한 후 “Happy Birthday”곡에 맞춰 춤을 추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무료입장이다. 같은 장소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MLK 기념행사가 열린다. 스펠맨칼리지와 협력해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마틴루터킹 목사를 기념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했다.(문의전화: 404-659-5437)

(권나라 기자)

센라파엘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센라파엘한인장로교회는 1983년부터 PCUSA 소속 교회로서 예배, 찬양, 선교, 말씀, 양육, 2세 교육의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 격: 1) PCUSA교단소속 혹은 PCUSA교단 Transfer가 법적으로 가능한분.
2) 정규신학대학 M.Div 이상 학위 소지한분.
3) 담임또는 부목사로서 4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분.
4)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통하신분.
5)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1) 이력서(한국과 영문)- www.pcusa.org/clc에서 P,I,F forms
2) 최종학력 증명서
3) 신앙 고백 및 목회철학 1통(한국과영문)
4) 목회비전 1통
5) 최근 6개월내 설교 CD 2부.
6) 본인및 가족 소개서 1통-가족사진 1매(6개월이내)
7) 추천서 4통(4통중 3통은 목회자로 한정하며, 추천자 밀봉날인 필수 혹은 추천인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추천인 4명의 Contact Info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먼저 서류를 접수하신후에, 추천서는 추후에 보내셔도 됩니다.(기일안내)

■ 기 타: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선임된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 문 의: 청빙위원장 김일 장로(415-491-1932)

제출서류 마감및 주소:

1. 마감일 없음, 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검토를 시작하여 담임 목사님을 선정할것임.
2.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pcsanrafael@yahoo.com

이 마지막 때에 주...
안간중 선교사(에나 감리교 일부...
약 28억 원)을 모아 왔다. 워런...
800여 명의 청년들...
300여 명의 청년들...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세계등대교회 Lighthouse Mission Church
이상남 목사
846 S. Union Ave, Los Angeles, CA 90017
Tel. (213) 380-9931 | www.worldlmc.org

북가주 국제기아대책 창립예배 드린다

한국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 설교

북가주 국제기아대책 창립예배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에서 진행된다. 설교는 정정섭 회장(한국 국제기아대책 대표)이 맡는다. 국제기아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71년에 설립된 국제 NGO단체로 세계의 기아상황을 알리고,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과 사랑을 전해 생존과 자립을 돕고 있다. 기아대책의 큰 주제는 bread and gospel이며, 떡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UN 산하 기관에 등록되어 UN과 협력해서 전세계에 일하고 있는 국제선교 단체이다. 세계 70개국에 3500명의 스텝들이 각종 사회사업과 복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송된 750명의 기아봉사단 선교사들도 세계무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국본부는 1989년 설립되어 93개 지역회와 162개 운영시설에서 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해 여러가지 복지사업과 북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현재, 2,296명의 이사, 206,859명의 후원회원, 3,300명의 자원봉사자, 1,595명의 직원, 737명의 해외 파송 선교사와 2,251명의 해외현지채용직원이 있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 국제기아대책은 지난해 모금한 900억원의 후원금 중 400억원을 해외 구호사업에, 300억원을 북한 개발사업에, 그리고 280억원을 한국의 빈곤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여 해외선교와 함께 국내 선교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올해의 예산은 1080억원 정도이다. 이번 북가주에 창립되는 국제기아대책은 김영련 목사, 위성교 목사, 김종민 목사, 김용배 목사, 김세형 목사 등 20명의 영입된 이사와 함께 한국,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 타 지역 국제기아대책과 협력해 다양한 구호 사업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문의: 209-275-2234

(임형진 기자)



시애틀 기독교연합회 2010 신년 조찬 기도회

시애틀 기독교연합회, 신년 조찬 기도회 열려

웨드럴웨이 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회장 원호 목사, 이하 웨드럴웨이 교회는 새해를 맞아 웨드럴 웨이 모든 교회가 모이는 2010년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신년 축복성회는 오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웨드럴웨이 감보리교회(담임 김용문 목사)에서 열리며, 8일과 9일은 저녁 7시, 10일은 저녁 6시에 시작된다. 특별히 9일 오전 6시에는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 신년 축복성회의 강사로는 구자경

목사(웨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조봉환 목사(웨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원호 목사(새 교회), 이석주 목사(금란교회)가 나선다. 보통 연합 부흥성회 강사로 타지역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반해, 같은 지역 목회자들로 강사진을 세운 것은 부흥을 향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교회 연합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웨드럴웨이 교회는 지난 성탄절 연합 찬양제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진 것과 같이, 연합 성회

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복성회는 말씀 사경회뿐 아니라 합심 기도와 개인기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원 호 목사는 "이번 성회는 말씀과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능력을 합입고 지역의 성서와 세계 열방을 향한 소망을 연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206-551-2375

켄 안 선교사 초청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 '21세기의 미디어 및 IT선교' 주제로

다음달로 3회째가 되는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가 2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열린다.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는 북가주 각 목회자들과 각 북가주 선교단체회원, 일반교인들 중 북가주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도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매회를 거듭하면서 참석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기독교인 중에서 중보기도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연합중보기도회에는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

원본부장)가 초청돼, 이슬람사역에 대한 심도깊은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에 켄 안 선교사(Global Media & IT 대표)가 초청됐다. 켄 안 선교사는 '21세기의 미디어 및 IT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21세기의 타문화권 특히 이슬람권 선교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미디어 및 IT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톨인 Media, IT가 어떻게 선교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강의한다. 유기는 목사(주순길장로교회)가 대표기도를 맡으며, 늘찬양선교단(대표 장승국



켄 안 선교사 (간사)가 찬양인도를, 권영국 목사(새누리 선교교회)가 기도인도를 맡았다. (임형진 기자)

목회자도 적은 회비로 의료혜택 받을 수 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지난 14년 동안 구제사역 활동

불경기가 지속 되면서 적지 않은 한인들이 비싼 의료 보험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자녀 돌을 둔 가정의 평균 보험료가 \$1,000를 쉽게 넘어 가는 형편이지만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보험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고 고민이 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대체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이 지역에선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1950년대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시작한 작은 운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큰 단체를 이루었으며 한국교계에서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의료비를 성실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기독교의료상조회' 북가주 지역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상향중앙장로교회 서인숙 권사는 봉사사업으로 도움을 손길을 펴고 있다. "성실한 성도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

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런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비가 걱정되는 한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 기독교 신자로 생후 3개월부터 64세까지 가능하다. 가입자는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으며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뉴저지 회원 이원호목사는 "목사님 심방을 갔다가 '기독교의료상조회'를 알게 되어 가입했는데 당시는 건강해서 다른 회원들을 돕는다는 목적이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후일 제가 그 수혜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의료상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골드(Gold)프로그램은 월 회비가 1인 \$135, 2인 \$260, 3인 이상 \$385이고, 골드플러스

(Gold Plus)는 1인 \$175, 2인 \$325, 3인 이상 \$425로 진찰, 치료, 입원, 수술 전후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브론즈(Bronze) 프로그램은 1인당 \$40, 실버(Silver)프로그램은 1인당 \$80로 수술비용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한 병명당 \$125,0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브라더스 키퍼(Brother's Keeper)라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어서 최고 100만불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인숙권사는 "어려운 시기라고 건강을 안 지킬 수도 없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필요 시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지역 기독교 신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서인숙 권사 전화 (650)515-2727 E-mail: so.insook@gmail.com (김영빈 기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선교교회(박동서 목사)주최 말씀묵상과 기도세미나가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됐다. 김요엘 선교사가 '하나님 음성 듣기와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9일 저녁에 강의했다. 김요엘 선교사는 "엘리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고 전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아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돼있다"면서 모인 청

도 "시대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려운 날마다 말씀묵상을 통해 영혼의 뼈와 살을 만들고 '거룩'을 내 인생의 신앙목표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엘리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상황에 대해 설명

을 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의 결정적 잘못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에나기아 지역)과 정략적 관계로 결혼한 것에 있었다. 시돈의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제사장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결혼시키면서 음란한 이방제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됐다" 말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음란의 영이 이스라엘에 유입되고 말았다. 당시 북

방주선교교회, 김요엘 선교사 초청 말씀과 기도세미나

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도 했다. 엘리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학교 수장이었다. 김 요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원어의미를 보면 마치 귀에 바로 가까이 대고 숨결이 들리듯 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나님 음성이 선지자 엘리아에게 임금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나안 지역 이방족속은 원래 풍

이스라엘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게 됐다. 이세벨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지자 엘리아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열왕기상 17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 속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임형진 기자)

2010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 일정 발표 한미 양국의 당면 과제와 세계 선교, 복음화 위해 기도

2010 신년 한미 국가 조찬기도회가 오는 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의 안정,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워싱턴주지회(회장 이상진 장로)는 지난 9일 임원회를 갖고 신년 한

미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진 회장과 임원단은 '2010 신년 한미 국가 조찬기도회'를 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기도회 진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5회째를 맞은 이번 한미 국가 조찬 기

도회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된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 미 대통령과 양국의 우호 증진과 발전, ▲국민 화합과 경제 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이상진 장로는 "미국과 한국, 세계적으로 담판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기도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미드웨이 렌트카

최저의 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MIDWAY CAR RENTAL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후속인 혜택을 적용 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완비(고급승용차, 스포츠카,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후버)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고승희 칼럼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흥분되었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한 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기도 시간이 짧아졌고 아주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부답스럽던 운전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첫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려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

을 때 몇 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손을 잡을 때 마치 나의 다른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손이 내 손인지, 아내 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에 차 하루 하루를 지나왔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에 쫓기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지

결혼을 앞둔 신랑처럼 새로이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때 불현듯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결코 내가 그려보고 있는 목회자의 길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내 뺨으로 한 줄기의

첫 사랑

않고 하루를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공 책을 읽는 듯 할 때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길을 떠나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흐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흔 아홉마리의 양들 편에서 있을 때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편에서 계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군중 속에 서 있을 때 주님은 간음한 여인의 편에서 계셨습니다. 내가 가진 자의 편에서 있을 때 주님은 헐벗고 가난한 자 편에서 계셨습니다. 내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을 때 주님은 고통하

는 한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소중히 보고 있을 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종의 자리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음 공로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상하고 빛진 심령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서 계신 곳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으니 나는 분명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마땅하리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도 그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종용히 고백해 봅니다. 나로 주님 서신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속은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로 간주되어 성경이 허무맹랑한 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고고학자들은 터키의 현재 수도인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곳에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탐사팀은 히타이트의 수도였던 헛투사에서 왕궁터, 신전의 거대한 돌 기둥, 전차 벽화 등의 유적을 찾아냈다. 에돔족속도 성경에만 기록되었던 다른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수천년 전 성경이 허위라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김만식 칼럼



김만식 목사
늘푸른교회

성경이 진실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가 성경의 역사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경에만 언급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

물들을 놓고 성경이 지어낸 것이라고 비난받았으나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면서 성경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아브람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를 떠났다가 하란에 머물렀다(창11:31) 이것은 3400

또한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위치한 하란 지역을 발굴한 결과, 과거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지금 세운 나라 이름에 따라 '에블라 문명'으로 불리는데, 수메르 문명보다 몇 백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된 점토판에 새겨진 기

록을 분석해보니 '에블라' 건설했고, 그들이 믿던 신의 이름은 '야로서' '야엘' 하나님의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성경의 역사성

년 전 이야기다. 고고학자들이 밝혀 내기 전까지는 성경을 부정하던 역사학자들에게 '갈대아 우르'는 그저 전 해내려오는 이야기 줌으로 무시되었다. 그러다 1800년대 후반에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성경에는 헛족속이 언급된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를 장사지내려고 헛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샀다(창 23:16). 수천년동안 헛(히타이트)족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세일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탐사하다가 에돔족속이 수천년간 집단으로 거주했던 증거를 발굴했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상을 조각처럼 파내 수 많은 집을 만들어 살았는데, 이것은 '페트라 폴리스'라고 불린다.

전희원 칼럼



전희원 목사
코넬한인교회

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통독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에 걸쳐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시도한 모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소망으로 모인 것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교인들이 제게 통독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해 주었습니다. 계중에는 참여하고 싶

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시작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찬국, 이은주 부부와 이우람, 유혜연 부부가 함께 왔는데, 그간 학기 중에 한국에 머물러 있었던 천국 형제의 부인이 은주 자매라는 사실을 처음 안 청년부 태정이가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하며 퍼즐을 마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진희 자매는 팔 수현이를 데리러 가야해서 11시 반에 나가겠다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에, 제가 갑자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했다가 "아! 이 말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하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성경통독으로 새해를 열었다!

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실험실에 나가야 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제게 해준 교인들도 있었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다고 하며 못내 아쉬움을 표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두 사람들 중 한쪽이 심적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부사이에 "거룩한 충돌"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말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코넬한인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 통독모임을 계획한 저는 모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인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신앙을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통독모임 첫날인 월요일 아침 9시가 되자 교회 건물 314호에 교인들이 모

신약통독을 마치고 나서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뿌듯해 했는지 그 감격을 말로 다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동안 신앙을 통독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1주일동안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한해를 열었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삶으로 2010년을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봉승전 칼럼



봉승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지난 여름에 내원한 건축회사 영업사원 A씨는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

다. 엘리베이터나 터널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할 때는 호흡의 곤란이 오면서 기절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원인을 못 찾아 3년씩이나 고생을 하다가 한의원에 내원해서 심장과 간의 열을 없애주는 치료를 받아서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 주위에 보면 A씨처럼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들 중 상당수가 A씨처럼 열과 화의 원인으로 온 경우이다.

어머니, 직장, 공부, 자녀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 없다. 배우자와 시댁식구와의 갈등, 재산상의 손실, 자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시험낙방, 가족 친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처사는 물가와 집값, 정치에 대한 분노 등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게 되면 심장과 간에 열이 쌓이게 된다.

현대사회는 화의 시대이고 열의 시대다. 세상은 편해지고 물질도 많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남편, 시

이렇듯 화기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살다보니 병명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괴상한 화와 관련된 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병들이 불면증, 이명,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이다. 공황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은 A씨처럼 공공장소나 좁은 공간에서 급격히 격심한 공포가 엄습하고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

움 등의 신체증상이 한 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심장에 열을 발생시키고 간의 기운이 막혀서 간열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치료는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한약과 침을 쓰게 되면 막혔던 인체가 원래의 순환을 회복하게 되어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시는 여성 직장인 B씨는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항상 짜증이 나고 하루에도 열이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며 무엇보다 가슴이 답답하며 두근거리면서 목과 어깨가 항상 뻐뻐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피곤함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환자의

가슴을 눌러본 결과 가볍게 눌렀어도 엄청난 답답함을 호소해서 불면의 원인이 심장의 열 때문이라는 것으로 진단했고 누굴 밀을 눌러보아서 갑갑함을 호소해 원인에 간열이 있음을 진단하였다. 그래서 황연, 석고, 치자 등의 심장과 간, 그리고 전신의 열을 없애주는 처방을 가감해서 썼더니 수면제를 끊고 2주 정도 만에 잠을 잘 자고 제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야행성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열이 많은 사람이다. 불면증은 병원에서는 수면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인 심장과 화의 열을 치료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껏 나온 화와 열로

인한 증상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 원인은 음식과 마음이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심장과 간에 열과 화를 불러서 현대의 난치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매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고, 반항하는 자녀와 미운 시어머니를 이해하면 병의 원인인 화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와 열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작용하여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약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을 되찾게 하고, 환자의 체질을 구별하여 침법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714)537-0800 / 엘바인 (949)355-5594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가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한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기고

로버트 박이 성탄 전날 북한으로 건너가고 해가 바뀌었으나 놀랄 만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무관심일 수도 있으나, 누구든 딱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까닭도 있다고 본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든 그렇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내국민(內國民)에 관해서라면 이 사건은 죽음을 면치 못할 '1호 범죄'다. 이른바 '상부(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모독으로 분류될 만하다. 성경을 반입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관리소)행을 면치 못할 범죄다. 외국인인 로버트 박의 경우 수령절대주의의 정전(正典)인 '유일사상 10대원칙'에 의거한 1호 범죄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로버트 박이 언론을 통해 선언한 내용은 북한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선례가 없는 유형의 사건이다.

미국 입장에서 로버트 박 사건은 우선 중범죄(felony) 사건이 아니다. 허가 없이 외국의 영토를 넘어간 것은 사실이나 그 의도가 악하다고 할 수 없어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 정도의 사건일 뿐 아니라, 적어도 미국 국내법적 입장에서 로버트 박의 발언에 범죄적 요소를 찾을 수 없어 북한에만 처리를 맡

한국 입장에서 '로버트 박'은 누구인가? 법적 차원을 넘는 무거운 주제를 제시한다. 북한에 관한 민간의 인도적(人道的)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기독교계는 요컨대 '무조건적'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을 포함해서 안 된다는 로버트 박의 메시지를 가볍게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의석 한 자리 만들어내지 못할 '북한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 책임은 북한 정권에만 있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백하자면 이 글을 쓰는 필자 개인에게도 로버트 박의 존재는 무겁다. 외투를 벗어 놓고

해결의 지표로 삼으면 된다고 본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 우리 민족이 원치 않았던 분단의 책임을 미국·러시아·중국·일본이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고,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주민 복지 책임 또한 한국을 포함한 이들 나라가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 큰 인도적 위기여서 세계의 양심에도 상처를 낼 지경에 이르렀다면, 새로운 종류의 현상 타파를 모색해야 할 시기를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현상 타파의 방법은 이라크, 아프간식의 '전쟁'과 '분쟁', '테러'에만 있지 않고, 반성과 용서, 사랑과 회생에도 있을 수 있다. 로버트 박은 말하고 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 한반도에서 상처도 증오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적 레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로버트 박이 보여준 이토록 전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만으로도 북한이 그를 사면할 이유가 되며,

미국이 반드시 그를 구해낼 이유가 된다. 로버트 박을 통해 한반도 진정한 평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기대한다. 그가 동상에 걸리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기를, 꼭 살아 돌아와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

김미영(전 한동대 교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북으로 간 로버트 박과 우리의 놀랄 만한 침묵

- 그가 보인 자기희생적 사랑만으로도 구해내야 할 이유 충분 -

길 수 없다. 말하자면 로버트 박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미국이 국민 보호와 헌법적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한미동맹상 적성국에 해당하는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대명사이자 은유(隱喻)라 할 수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그동안 시원하게 말 할 마디 못하고 참으로 너그럽게 베풀어왔다. 어둠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약한 육신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그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주제라면 로버트 박 처리 문제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다. 그가 목숨을 담보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들어있는 '평화의 원리'를 문제

최근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 원하는 것이 '전쟁' 아니라 '평화'임을 표명했다. 만일 현재의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에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너무 버겁고, 그 비용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희생이 무과하기에는 너

보험 칼럼



진철희 시장
캘리포니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일상생활에서 소위 동료,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건강에 대한 화제는 항상 우선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건강

는 살수가 없다할 정도로 보험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으로는 크게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비즈니스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등을 들 수 있는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보다 잃기 쉬운 환경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건강 보험의 필요성이 중요한 때이며 특히 미국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을 때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금액에 이르므로 사전에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듯 건강 보험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지킴이"라는 데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막상 의료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만만치 않은 보험료와 복잡한 건강 보험 플랜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본 칼럼을 통해서 건강 보험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

건강보험, 왜 필요한가!

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함을 보이지 않는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건강 유지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공해병과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신체 건강 장애 요인들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환경에 사람들이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인간은 역사 이래 항상 질병, 사고, 전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보험'인데 보험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상품 중 최고의 제도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

고자 한다.

- Health Care Cost (의료비용) 의료비용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1. 연방 정부에 의한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 총 의료경비의 47%
2. 보험회사를 통한 건강보험플랜 - 총 의료경비의 30%
3. 개인차원에서 부담하는 의료경비 - 총 의료경비의 23%

- 건강보험플랜 미국 인구의 68%는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및 회사를 통하여 건강 보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학교를 포함하여 17%의 인구가 정부 프로그램하에서 혜택을 얻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무보험자로 볼 수 있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임 변호사의 이민법



데보라 임 변호사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많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깊은 소망은 조화를 이룬 '건강' 인거 같다.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 이민 사회가 더욱 건강해져서 새로 이민 오는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리고 올 한해는 이민에 대한 잘못된 소문법을 뿌리 뽑는 해가 됐으면 한다.

필자는 1967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다. 이민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유학생들과 불체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당시의 한인타운은 지금처럼 호화롭지 못했어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대체적으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다. 70, 80년도를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이민사회는 변형됐고, 1986에는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사면 조건 중에는 198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불법체

류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 때문에 유학생이나 자사 상사 신분을 유지했거나 방문 기간이 합법적인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후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경제 호황을 누릴 때 부터 이민 하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때 이민 대기중인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포기했고, 10년 이상 걸리는 형제 자매 초청, 이민이 다소 단축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오면서 현재 미국 전역 한인타운이 있는 곳 마다 다섯 가지 정중한 가정이 신분 유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이민법은 1952년에 개정된 McCarran-Walter Act를 기초로 삼은 법으로 그 후에도 수 없이 개정되었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아직도 남아있다. 첫째는 가까운 친지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민신청이 아직도 가능하다. 흔히 접하는 실수는 변호사가 아닌 곳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고도 만약을 위해 Back-Up으로 형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변호사 한테까지도 타사의 형제가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이 단정 짓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세계 경제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도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 4만, 4만, 4만 하고 1만(4순위에는 쿼

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부터 취업이민의 쿼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세번째는 취업이민 경우는 5순위로 1만이란 쿼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은밀히 따지면 취업이민이 아닌 '취업창출'을 목표로 한 순위다. 홍콩이 영국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바뀔 때 캐나다의 이들을 투자이민 경우로 받아들여 친척된 경제를 활성화 했고 미국도 1990년도 이후 백만불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주려고 1만 중 7천 쿼터를 책정했다. 나머지 3천은 백만불은 안되지만 최소 오십만불을 투자해 2년 안에 10명의 풀타임 고용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네가지 방법으로 이민이 가능하나 정말 어렵다. 첫째는 망명인 신청이다. 두번째는 추방재판을 받을 때 면제 신청조건을 갖추어서 추방을 당하지 않은 경우다. 세번째는 Diversity라고 해서 해마다 10월 1일자로 영주권 추천 대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으로 입력 하되 단법에 지정된 나라에서 태어났던 지 위에 언급한 코에 걸 코걸이가 이민법상에는 없으나 너무나도 애절한 상황과 형편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 공평과 정의를 목표로 삼아 한 사람의 개인을 정치가가 국회에 Private Bill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예로 몇 년 전 한인타운의 한 데니스 식당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 사망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그 때 현행했던 이민법 조항로는 구제가 불가능 했었으나 정치가들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

문의: 213-382-5450

이기범 칼럼



이기범 목사
스토크홀름인장로교회

새로운 영적습관

1. 주머니에 성경 암송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틈나는대로 한글/영어로 암송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2. 주일예배 20분 전에 도착하여, 오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영적 지도자와 기쁨을 함께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 6:6)

3. Q.T.(생명의 삶) 책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가면,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눈다. 은혜와 열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엡4:7)

4. 차에 타면 찬양 CD를 틀고, 날씨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에도 찬양을 부름으로써 주님과 감성을 나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15:11).

한국 글로벌 비전기독교학교 사역자 청빙

한국의 음성과 문명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기독교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에서는 청소년 선교교육사역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1. 사역분야

- 1) 과목교사(영어로 수업가능한분으로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수학,과학,역사,사회 분야
- 2) 생활관 부부 지도교사(간단한영어회화 가능자, 선교사,목회자,교회중직자 출신 환영,초대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부부사역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1년이상 사역이 가능한분
 - 음주흡연을 하지않고 경건회 및 신앙지도 가능한분
 - 학생 기숙사에서 별도의 생활지도교사 숙소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가능 한분

2. 처우

- 1) 교사: 숙소 및 1일 점심저녁 제공, 왕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 지원, 연봉 \$20,000.00 에서 \$25,000.00 지급,주5일제, 방학휴가
- 2) 생활관부부지도교사: 생활관내 부부교사 거주, 1일 3식제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지원, 연봉\$10,000.00 에서 \$15,000.00 지급, 주5일 근무,년간 6주휴가.
- 3) 자원봉사 사역자에게는 : 항공권,숙소,1일3식, 및 매월 \$500.00의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자로 지원 하시는분 우선 선발 (최소 6개월 사역조건)

3.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가족및 신앙간증 포함)
- 이력서에 소개된 학력 경력 증명자료
- 건강 진단서
- 여권사본

4. 연락처

- GEMGVCS 미주본부장:1-951-704-6087
- 한국인사과장 이재윤: 82-10-6625-3043
- E-mail: gemgvcs@naver.com
- 홈페이지: www.gemgem.org

5. 모집기한

- 1) 2010 봄학기 시작사역자 : 2010 2월 10일까지 한국학교 부임 가능하도록 1월 31일까지 신청
- 2) 2010 가을학기 시작사역자: 2010 8월 1일까지 한국 학교 부임가능하도록 6월 30일까지 신청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음)

프랑스, 개신교화 직전에 학살로 무너지다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종교 전쟁과 바돌로메 대학살

1. 종교 전쟁 (1562년-1598년)

파리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의 주범 기즈가 1562년 3월 16일에 종교적 승리가 된 것처럼 파리로 입성하자 위그노들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 일전에는 위그노들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라 하여 '위그노 전쟁'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종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 전쟁은 여덟 번에 걸쳐 36년간 전쟁과 휴전을 계속하다가,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평화시대가 도래된다. 하지만 앙리 4세가 광신적인 가톨릭 교도인 프랑수와 하바이약(Francois Ravaillac)에게 암살되

면서, 루이 12세와 13세 시대에 칙령 취소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1787년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칙령으로 낭트 칙령은 취소되고 다시 위그노 박해가 시작된다.

전쟁 기간 중 1572년 8월 24일에 발생한 바돌로메 축제일 대학살은 위그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2. 바돌로메 학살의 배경 (1572년 8월 24일)

제3차 종교전쟁이 1570년에 끝난 후, 까뜨린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과 개신교국의 정략결혼을 시도한다. 딸인 마고(Marguerite de Valois)는 나바르 왕국의

앙리(훗날 앙리 4세)와, 아들 앙리 3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시키려 하지만 마고의 결혼만 성사시킨다.

당시 위그노의 수장이며 왕의 중요한 자문관이던 가스파 드 폴리니(Gaspard de Coligny)는 독일 신교도 제후들과의 동맹을 통해 합스부르크 가문과 맞서므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플랑드르(Flandre) 지방을 공격하여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자고 왕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진영의 기즈 형제와 모후 까뜨린 역시 딸 엘리자베스가 스페인의 왕비로 있었기에 전쟁을 원치 않았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으나,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된 까뜨린은 왕이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밀하며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폴리니 제독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 1572년 8월 18일, 앙리와 마고와의 결혼식을 행한다. 기즈 암살 사건과 종교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가톨릭과 개신교의 관계 회복으로 위기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 결혼은 대외적인 연극일 뿐, 개신교의 수장인 폴리니 제독의 제거에 대한 욕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술수에 탁월했던 까뜨린은 폴리니 제독을 직접 제거하는 일에 무모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당시 아버지 기즈를 이어 위그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던 아들 앙리 기즈(Henri de Guise)는 폴리니 제독이 기즈의 암살 배후 인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



대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폴리니의 저격 장면.

에, 까뜨린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독 제거의 거사를 기즈 가문에 맡긴다. 그리고 결혼식 4일 후인 8월 22일 오전, 가스콘 출신의 한 장교는 화승총으로 폴리니를 저격하지만 왼쪽 팔에 부상만 입히게 된다. 이 사건으로 결혼식은 혼란 가운데 끝났으며, 폴리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그노 지도자들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위기에 몰린 왕과 까뜨린은 가톨릭 진영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위그노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했다는 비판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까뜨린은 이 사건이 쉽게 마무리 수 없음을 알고 위그노들을 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심한다. 그리고 8월 23일 바돌로메 축제일 전날 밤 11시에 생 제르망 룩스루와 성당의 종소리가 학살의 신호였으나, 거듭되는 전략 회의로 축제일인 24일 새벽 3시에서야 종소리가 울리면서 부상중인 폴리니를 살해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학살은 자행되었다.

원색 십자가와 스카프를 한 왕의 군대는 먼저 루브르 근처 생 제르망 룩스루와 일대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온 2백명 가량의 위그노 귀족들이 머물고 있는 보주 광장으로 가서 학살했으며 그들의 시신을 루브르 왕궁 마당에 모았다. 기즈의 군대와 갈뱅의 팔레슈 뭉데규 동문인 이나스 드 로올라가 만든

예수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학살에 앞장 서게 된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잔인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옷을 벗겨 길거리로 내동댕이칠 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약탈하였다. 상상 이상의 잔인한 학살로 인해 왕은 정오에 학살 중단의 명령을 전달하였지만, 명령을 알리는 군대의 나팔소리로는 폭도들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약탈자들은 평소 자신의 종교에 그다지 신실치 않은 가톨릭 교도들마저 살해함으로 가톨릭 국가로서의 모습을 정비하려 하였다. 시신들은 강물 속에 던져졌고, 강물은 핏줄기가 되어 흘러갔고, 거리들은 피와 시신의 냄새로 코를 찔렀다. 파리에서 시작된 대량 학살은 그렇게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3. 전국에 걸친 학살

이 끔찍한 만행은 파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로 번져 나갔으며 처음 3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명의 위그노 신자들을 죽였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불과 1주일 만에 7만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것도 하나님 이름의 명목으로 살해하였다. 반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위그노들을 죽인 이 날을 축제일로 지정하여 기쁨에 도취하였고, 대학살의 소식을 처음

전해 준 기즈 가문의 로렌 추기경에게 1,000 ecus라는 엄청난 포상금을 사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의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학살의 시작을 알린 성당의 종루



지방에서 올라온 위그노 지도자들이 묵었던 보주 광장(place des vosges).



산 자와 죽은 자를 세느강에 투척한 후 학살하는 장면. 세느강은 관광 명소이기 전에 순교의 장소이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적

프라이머 생등심 프라이머 갈비살 샤브 샤브	프라이머 꽃살 초이스 팜갈비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오리고기 흑염소 돈까스/비프까스
-------------------------------	-----------------------------------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기철 대표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썼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속터졌던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중 장거리 및 귀국이사
해외이사 문의 환영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에이스 자동차

앞유리 용접 수리

둘에 맞아 깨진 부위
금시간 부위를 교환하지 않고 수리
용접수리는 금이 더 이상 진행 또는 재발하지 않으며
용접후의 상태는 90%이상 복원됩니다.
LIFETIME WARRANTY 새유리 교환가능
리스차 반납시 문의해주세요

T. 213-503-9596
(출장서비스 헤드팀이다)

오스카 카펫 클리닝

OSCAR CARPET CLEANING 스팀삼품

“고온스팀, 고성능 트럭마운트”
하우스, 콘도, 아파트, 사무실, 업소
소파, 카우치, 러그, 자동차시트
Floor Wax, Tile 클리닝

(24Hrs, Cell) 전지역서비스
213. 550. 6061
818. 588. 0993
714. 504. 0067

Window Coverings
버티칼, 블라인드, 셔터 등
설치 및 수리

교회 특별 할인 / 모든 청소 무료상담

K ONE Plumbing

-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리파이링 무료 견적
-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타이밍벨트
- 튜업 정비

10% 할인

76 오일 사용
\$12.99 *tax 6cyl.
\$ 9.99 *tax 4cyl.
\$14.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Joseph INTERIOR

오셉인테리어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잇
- 페리오, 텍크, 펠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몰딩, 페인팅 (하우스,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323.788.8689 김예스터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컴퓨터 출장수리

하드디스크 복구, 백업
컴퓨터수리, 네트워크

>>>>전화상담 무료<<<<
213-605-2350, 818-621-9002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정실하게 저렴하게

(714) 749-6406

자세사육, 자세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라이선스보통 원비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견적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 Foreign & Domestic Car
- ◆ 새 유리 & 중고 유리
-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 무료 전화 견적
- ◆ Low, Low Prices
-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 Stone Damage 수리

둘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카펫 클리닝

트럭마운트, 고온 스팀삼품, 의자, 소파,
타일 등, 바닥왁스 (본인 직접시공, 성실 봉사)

213-839-0300, 818-419-5548
101 CLEANING 서비스

차 바디수리 50% 절약!

반값으로도 할 수 있다! (오토맥스)

AutoMax Body Care Service

- 각종 자동차 수리 관련 상담 서비스
- 전화 견적 및 방문 견적(LA 인근) 가능

TEL. (213) 265-8485 / (213) 388-4464
Main Office :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NIA, SAMSUNG

323.52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0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월 1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국제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EL : 626-448-0023
3225 N. Tyler Ave. Elmonte, CA 91731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TEL : 213-388-1000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USA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謹賀新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행사기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가 히트상품인 이유!]

로컬/장거리/국제전화까지 무제한

첫째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TAX 포함]
\$24.99 /월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둘째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기기번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P BOX가 없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Special Event!

지금 가입하시면,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금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 환금성과
간편한 온라인 코퍼레이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금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 환금성과
간편한 온라인 코퍼레이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800 872 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아·이·토·크·비·비
Joins AMERICA iTalkBB
www.koreadaily.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콜링 가입자에게는 개별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하하신년

존경하는 미주동포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후의와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새해에 이뤄지길 고대하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사반세기(四半世紀)를 지나 창립 26주년을 맞는 아주관광이 미주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준비한 여러 사업이 결실을 거두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는 ‘진정한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풍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야를 얻는 더욱 발전된 여행으로 미주동포 여러분들께서 주신 따뜻한 관심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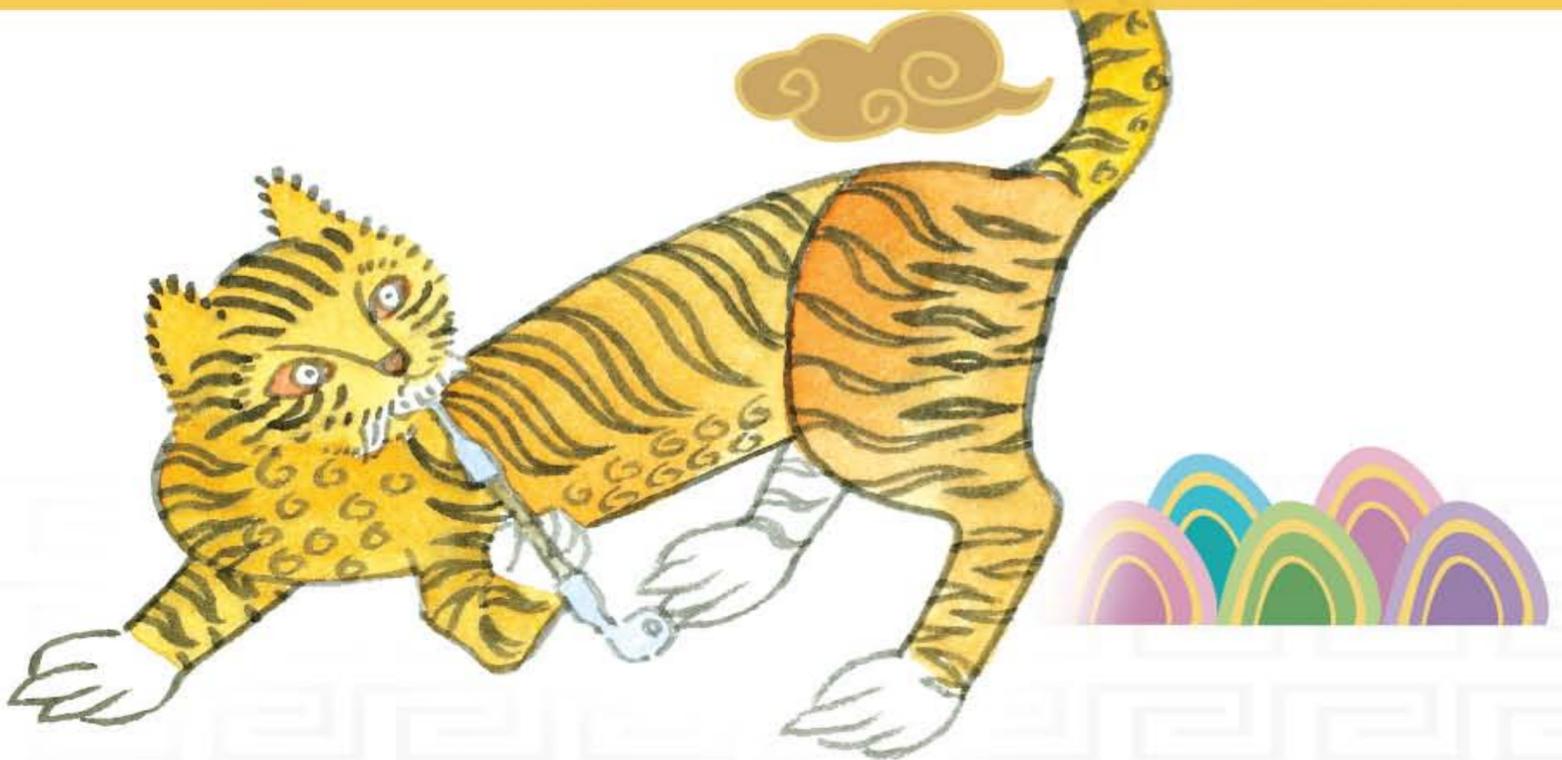
경인년 한해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관광 대표 박평식 배상



기독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www.usajutour.com
아주좋은
Aju Tours
CST # : 2052210-10

아주관광



대표전화 (213)388-4000 •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